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인숙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Sook, Park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abil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s** :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95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4 until 28, 2017.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8.0 program,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 mean score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ability of the participants were 3.43, 3.37 and 3.60.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awareness and empathy ability($r = .53, p < .005$). and between other-awareness and empathy ability($r = .25, p < .005$).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pathy ability. And, self-Awareness was the biggest prediction factor influencing empathy ability. **Conclusion** : This basic information may be used to structure intervention on empathy enhance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and apply it to improve empathy.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wareness, Empathy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의료환경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간호 대상자를 만나고 그들을 수용하며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기인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아가 내부의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경향성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 인식 그리고 사회적 불안 등 3개

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된다[2]. 사적 자기인식이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공적 자기인식이란 타인들에 의해 자신이 평가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나 타인들에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적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할 때 불안을 느끼기 쉬운 것을 말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임으로서[3],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다르다는 타인인식 능력을 갖게 된다. 이에 자기인식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의 예측요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타인인식(Other-awareness)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및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며, 내적 타인인식, 외적 타인인식 그리고 공상적 타인인식 등 3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된다[4].

내적 타인인식은 타인의 내면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외적 타인인식은 타인의 외면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공상적 타인인식은 타인의 현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연상적이며 회상적 의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5],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대인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6].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수용이 중요하며[7], 자기수용이 가능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타인과의 비교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상처받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적다[2]. 간호사가 자기수용의 역량이 높으면 임상에서 공감능력이 높아 간호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과 요구사항을 인지하게 하므로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8]. 이에 타인인식은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의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므로[3, 5]. 타인의 내적 견해를 아는 것은 공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6] 간호대학생이 간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감능력(Empathy ability)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정서적 상태나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9-11], 간호사에게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12]. 이에 공감은 간호대학생은 타인의 정서 및 생각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간호대상자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바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직과 의사소통[13],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14],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15], 문화적 역량[16] 등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간의 관계를 보는 논문이 드물었고, 공감은 있으나 타인인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17],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은 있지만[18]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인식 및 타인인식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건강한 예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 수행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4) 대상자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J시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이다. 본 연구에서 총 20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이중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5명을 제외한 후 분석에 사용된 최종 대상자는 195(97.5%)이었다. 이는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크기 산출의 결과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요인의 수 5로 설정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38명을 충족한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자기인식 20개 문항, 타인인식 21개 문항 및 공감능력 30개 문항으로 총 7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기인식

자기인식은 자아가 내부의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가에 대한 경향성으로 측정도구는 Fenigstein 등[2]이 개발한 자기인식검사를 Eun[3]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총 20문항이다. 사적 자기인식 9문항, 공적 자기인식 5문항 및 사회적 불안 6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며, 역으로 채점되는 문항은 7문항(3, 6, 9, 11, 14, 16, 19)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인식이 높다고 본다. Eun[3]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2) 타인인식

타인인식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및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지능력으로 측정도구는 Fenigstein 등[2]이 개발한 자기인식검사를 Eun[3]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총 21문항이다. 내적 타인인식 12문항, 외적 타인인식 5문항 및 공상적 타인인식 4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인식이 높다고 본다. Eun[3]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작용으로서 측정도구는 Davis[19]가 개발한 대인관계 반응지수검사(IRI)를 Jeon[20]이 재구성하고, 이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21]이 사용한 것으로 총 30문항이다. 인지적 공감 15문항 및 정서적 공감 15문항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고 본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의 5일 동안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설문조사 전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및 연구기간 중 언제든지 연구철회의 자유가 있으며 참여중단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설명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서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구 참여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여 참여 대상

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무런 표시가 없는 설문 봉투에 넣어 개별적으로 수거하였고, 통계처리 시에도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공감능력의 영향요인은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수집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학생이 175명(89.7%), 남학생이 20명(10.3%)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50명(25.6%)이었으며, 2학년은 45명(23.2%)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92명(47.2%), 무교는 103명(52.8%)이었고, 경제 상태는 높은 정도 15명(7.7%), 중간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75	89.7
	Male	20	10.3
Grade	Freshman	50	25.6
	Sophomore	45	23.2
	Junior	50	25.6
	Senior	50	25.6
Religion	Yes	92	47.2
	No	103	52.8
Economic status	High	15	7.7
	Middle	153	78.5
	Low	27	13.8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9	4.7
	Position-centered	51	26.1
	Person-centered	135	69.2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or Empathy class	Yes	170	87.2
	No	25	12.8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100	51.3
	No	95	48.7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57	29.2
	Satisfactory	103	52.9
	Not satisfactory	35	17.9

153명(78.5%), 낮은 정도 27명(13.8%) 순이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사람지향적 소통이 135명(69.2%), 권위적 소통은 51명(26.1%), 위임적 소통이 9명(4.7%)이었고, 의사소통이나 공감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170명(87.2%),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이 25명(12.8%)이었다. 임상실습경험 학생은 100명(51.3%),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95명(48.7%)이었고, 학업성취수준은 우수한 수준이 57명(29.2%), 만족하는 수준은 103명(52.9%),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 35명(17.9%)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공감능력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인식은 5점 만점에 $3.43(\pm 0.32)$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공적 자기인식이 $3.75(\pm 0.57)$ 점, 사적 자기인식 $3.53(\pm 0.32)$ 점, 사회적 불안 $2.85(\pm 0.68)$ 점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타인인식은 5점 만점에 $3.37(\pm 0.53)$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외적 타인인식 $3.43(\pm 0.53)$ 점, 내적 타인인식이 $3.37(\pm 0.47)$ 점, 공상적 타인인식 $3.33(\pm 0.61)$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60(\pm 0.38)$ 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공감능력 $3.67(\pm 0.39)$ 점, 인지적 공감 $3.53(\pm 0.37)$ 점 순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은 학년($F=3.92, p=.008$), 임상실습경험($t=0.43, p=.007$), 학업성취수준($F=6.09,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학생(3.41 ± 0.36)이 남학생(3.32 ± 0.34) 보다 높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3.43 ± 0.31)가 무교(3.37 ± 0.33) 보다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중간정도(3.41 ± 0.31)가 높은 정도(3.43 ± 0.31), 낮은 정도(3.34 ± 0.41)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사람지향적 소통(3.45 ± 0.30)이 위임적 소통(3.41 ± 0.33), 권위적 소통(3.35 ± 0.35)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이나 공감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3.42 ± 0.35)이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3.37 ± 0.33)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인식은 성별은 여학생(3.43 ± 0.59)이 남학생(3.35 ± 0.57) 보다 높았고, 학년은 4학년(3.45 ± 0.51)이 1학년(3.38 ± 0.43), 2학년(3.42 ± 0.52), 3학년(3.41 ± 0.38) 보다 높았으며, 종교는 무교(3.45 ± 0.53)가 종교가 있는 경우(3.41 ± 0.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준은

Table 2. Level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ability

(N= 195)

Variables	Categories	M \pm SD	Actual range	Reference range
Self-awareness	Public self-awareness	3.75 \pm 0.57	1.62~5.00	1~5
	Private self-awareness	3.53 \pm 0.32	2.43~4.56	1~5
	Social anxiety	2.85 \pm 0.68	1.17~5.00	1~5
	Total	3.43 \pm 0.32	2.43~4.50	
Other-awareness	External other-awareness	3.43 \pm 0.53	1.49~4.82	1~5
	Internal other-awareness	3.37 \pm 0.47	1.48~4.91	1~5
	Fancy other-awareness	3.33 \pm 0.61	1.5~5.00	1~5
	Total	3.37 \pm 0.53	1.21~5.00	
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ic ability	3.53 \pm 0.37	2.77~4.55	1~5
	Emotional empathic ability	3.67 \pm 0.39	2.15~2.45	1~5
	Total	3.60 \pm 0.38	2.81~4.61	

Table 3. The Degree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Empathy abil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Female	3.41±0.36	0.90	3.43±0.59	0.08	3.44±0.30	0.86
	Male	3.32±0.34	(.346)	3.35±0.57	(.584)	3.41±0.31	(.389)
Grade	Freshman ^a	3.25±0.25	3.92	3.38±0.43		3.35±0.36	
	Sophomore ^b	3.42±0.35	(.008)	3.42±0.52	1.05	3.33±0.31	1.77
	Junior ^c	3.41±0.38	d>b,	3.35±0.51	(.354)	3.43±0.25	(.133)
	Senior ^d	3.47±0.36	c>a	3.45±0.51		3.46±0.28	
Religion	Yes	3.43±0.31	0.15	3.41±0.49	-0.47	3.45±0.33	0.76
	No	3.37±0.33	(.221)	3.45±0.53	(.619)	3.42±0.28	(.364)
Economic status	High	3.37±0.40		3.12±0.23		3.47±0.33	
	Middle	3.41±0.31	0.26	3.42±0.38	1.63	3.40±0.30	0.13
	Low	3.34±0.41	(.688)	3.38±0.61	(.192)	3.39±0.31	(.780)
Family communication	Imperatives-centered	3.41±0.33		3.33±0.43		3.41±0.38	
	Position-centered	3.35±0.35	0.35	3.48±0.51	1.05	3.46±0.25	0.08
	Person-centered	3.45±0.30	(.735)	3.41±0.48	(.348)	3.44±0.27	(.930)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or empathy class	Yes	3.42±0.35	0.92	3.45±0.52	0.62	3.41±0.35	0.05
	No	3.37±0.33	(.356)	3.38±0.49	(.531)	3.39±0.29	(.951)
Experiences of clinical practice	Yes	3.43±0.31	0.43	3.43±0.53	0.24	3.49±0.25	2.70
	No	3.35±0.39	(.007)	3.39±0.49	(.854)	3.40±0.28	(.030)
Academic achievement	Excellent ^a	3.53±0.36	6.09	3.45±0.50		3.56±0.32	6.68
	Satisfactory ^b	3.41±0.35	(.001)	3.36±0.47	0.61	3.42±0.27	(.001)
	Not satisfactory ^c	3.32±0.29	a>b>c	3.42±0.49	(.542)	3.39±0.27	a>b>c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Variables	Empathy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r(p)	r(p)	r(p)
Empathy	1		
Self-awareness	.53(.001)	1	
Other-awareness	.25(.001)	.33(.003)	1

Table 5. Effect of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on Empathy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92	0.18		8.92	<.001
Self-awareness	0.23	0.05	.36	6.02	<.001
Other-awareness	0.15	0.03	.25	5.94	<.001

$R^2 = .36$, Adj. $R^2 = .35$, $F = 48.52$, $p < .001$.

중간정도(3.42 ± 0.38)가 높은 정도(3.12 ± 0.23), 낮은 정도(3.38 ± 0.61)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권위적 소통(3.48 ± 0.51)이 위임적 소통(3.33 ± 0.43), 사람지향적 소통(3.41 ± 0.4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나 공감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3.45 ± 0.52)이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3.38 ± 0.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3.43 ± 0.53)이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학생(3.39 ± 0.49)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취 수준은 우수한 수준(3.45 ± 0.50)이 만족하는 수준(3.36 ± 0.47),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3.42 ± 0.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임상실습 경험($t=2.70, p=.030$), 학업성취수준($F=6.6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학생(3.44 ± 0.30)이 남학생(3.41 ± 0.31) 보다 높았고, 학년은 4학년(3.46 ± 0.28)이 1학년(3.35 ± 0.36), 2학년(3.33 ± 0.31), 3학년(3.43 ± 0.25) 보다 높았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3.45 ± 0.33)가 무교(3.42 ± 0.28)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경제적 수준은 높은 정도(3.47 ± 0.33)가 중간 정도(3.40 ± 0.30), 낮은 정도(3.39 ± 0.31)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권위적 소통(3.46 ± 0.25)이 위임적 소통(3.41 ± 0.38), 사람지향적 소통(3.46 ± 0.2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나 공감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3.41 ± 0.35)이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3.39 ± 0.2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즉, 자기인식은 4학년,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학업성취가 우수한 수준의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은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학업성취가 우수한 수준의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및 공감능력 간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자기인식($r=.53,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고, 타인인식($r=.25,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3, p=.003$)(Table 4).

5. 대상자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 한계값(tolerance), 분산 팽창인자(VIF) 값과 잔차값(Durbin-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621~.718로 0~1사이였고, VIF 값은 1.17~1.26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분석 결과 Durbin-Watson 검증치가 1.679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오차항 간의 체계적 상관성이 낮았으며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48.5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001$), 모형의 설명력은 35%였다. 구체적 변인으로는 자기인식, 타인인식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인식($\beta=.36, p<.001$), 타인인식($\beta=.25, p<.001$)순으로 자기인식이 공감능력에 영향하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인식은 5점 만점에 3.43점이었고 하위영역인 공적 자기인식은 3.75점, 사적 자기인식은 3.53점, 사회적 불안은 2.8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수준은 Park과 Choi[22]의 3.45점, Kang[23]의 3.47과 유사하였고, Park과 Kim[24]의 3.50점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전공이 달라 비교가 어렵지만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한 Lim[23]의 자기인식 3.3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인식의 하위영역에서 공

적자기인식이 3.75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3]의 3.66점, Park과 Kim[25]의 3.68점, Park과 Choi[22]의 3.66점 및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한 Lim[25]의 3.65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26], 외적동기와 유사하며 Kang[23], 공적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타인의 거부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다[2]. 이에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타인의 내적 견해를 아는 것은 공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17],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적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3, 18]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정도는 학년($F=3.92, p=.008$), 임상실습경험($t=0.43, p=.007$), 학업성취수준($F=6.09, p=.001$)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Oh 등[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은 학력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경험을 통하여 학우, 실습 현장에서의 의료진, 간호 대상자 및 대상자의 가족 등과의 상호작용과 유대관계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취도는 사적 자기인식인 내적동기가 낮고 타인에게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부여하고자하는 공적자기인식마저 부족한 학생들은 미흡한 학업성취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향상을 위한 간호학 교과과정과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타인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이었고 하위영역인 내적타인인식은 3.37점, 외적타인인식은 3.43점, 공상적 타인인식은 3.33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타인인식수준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 등[18]의 3.41점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3]의 3.34점,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한 Lim[25]의 3.11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타인인식의 하위영역에서 외적 타인인식이 3.4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23]

의 3.43점과 동일하였으며, Oh 등[18]의 3.36점과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한 Lim[25]의 3.22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과 실습을 통한 다양한 경험으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27]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타인인식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Oh 등[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타인에 대한 주의와 관심으로 타인의 내면과 외면의 표현을 간과하지 않고 타인의 심리내면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며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추론을 경험할 수 있는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60점이었고 하위영역인 인지적 공감은 3.53점, 정서적 공감능력 3.67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수준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등[16]과 Seo[28]의 3.50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Kang[23]의 3.69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에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3.6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Yang 등[16]과 Seo[28]의 3.60점 보다 다소 높았으나 인지적 공감 능력보다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Yang 등[16]과 Seo[2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정서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노력이 정서적 공감능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임상실습경험($t=2.70, p=.030$), 학업성취수준($F=6.6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갖게 된다는 선행연구[29]와 간호학적 지식교육은 인지적 공감을 증진시키고, 임상실습과 같은 경험은 정서적 공감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23]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간호학 교과목의 경우 대다수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로 치우쳐 있기에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과 정서를 탐색하는 평가체

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학 운영으로 교과목에는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일어 날수 있는 소집단 형태의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과 액션러닝, 역할연기 등 다양한 교수법 활용이 더욱 요구된다. 교과목 내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자아성장수기 프로그램, 간호대상자와 가족의 시각을 담은 독서 토론, 맹인체험과 노인체험, 성향분석을 통한 자기와 타인 알아가기 등의 체득화 프로그램을 단계별이나 학년별로 개발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및 공감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은 공감 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인식($r=.53, p=.001$)과 타인인식($r=.25, p=.001$)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23]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며, 타인의 드러내지 않는 내면에 주의를 요하는 타인인식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상상하거나 체험 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방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자기인식으로, 이는 자기인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고, 생각, 태도 등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5]가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이 공감능력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공감능력에 관련되는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 및 탐색에 관한 연구가 필요성이 보여진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은 공감 능력 향상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향상시켜 공감능력을 지닌 미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교육과정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평가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 타인인식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었다. 본 연구는 G도 J시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인식은 5점 만점에 3.43점으로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공적 자기인식이 3.75점이었고, 타인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외적 타인인식이 3.43점이었으며, 공간능력은 5점 만점에 3.60점으로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역은 정서 공감능력이 3.67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식은 학년, 임상실습경험,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타인인식은 임상실습 경험에 있는 학생, 학업성취 수준이 우수한 학생 및 의사소통이나 공감의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공감능력은 임상실습경험과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자기인식($r=.53, p=.001$)과 타인인식($r=.25, p=.001$)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 중 자기인식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하는 가장 큰 변인이었고, 이들 변수들은 공감능력을 36%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자기인식, 타인인식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과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이 공감능력에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 전·후 비교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Lee KS, Lee MK, Kim KH. Human relation & communication. Seoul: Hyunmoon; 2012. p.61-80.
2. Fenigstein, A., Scheier, M.F., Buss, AH.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5;43(1):522-527.
3. Eun HG. Adolescents'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the satisfac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among the grades and between the sexe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1;9:136-157.
4. Lee HK, Kim JH. Effects of role acceptance on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1;13(1):15-29.
5. Eun HG, J YB. The elementary students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4;5(1):191-204.
6. Ahrweiler F, Scheffer C., Roling G, Hahn EG, Neumann M. Clinical practice and self-awareness as determinants of empathy in undergraduate education: qualitative short survey at three medical schools in Germany. *GMS Zeitschrift Für Medizinische Ausbildung*. 2014;31(4):25-39.
7. Im JO, Chang SS. Trends and suggestions in research on self-acceptanc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12;33(1):159-184.
8. Ward J, Cody J, Schaal M, Hojat M. The empathy enigma: An empirical study of decline in empath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12;28(1):34-40.
9. Cohen D, Strayer J.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1996;32(6):988-998.
10. Williams J, Stickley T, Empathy and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010;30(8): 752-755.
11. M. L. Hoffman,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p.10-16.
12. Jeong MH, Shin MA.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fo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 16(9):89-105.
13. Ji EJ.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4;16(3):1685-1697.
14. Park JH, Chung SK.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7698-7707.
15. Chae MO.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5):95-103.
16. Yang SY, Lim HN, Lee JH.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19(2):183-93.
17. Kim HJ, Yi M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 237-245.

18. Oh EJ, Ko, SH, Kim, JY, Kim, SR,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Sep;21(4):426-434.
19.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 S Cata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 p.76-85.
20. Jeon BS.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master's thesis].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3. p.24-70.
21. Park SH. Empathy and empathic ability understanding. Seoul: Wonminsa; 2004. p.1-14.
22. Park JW, Choi MS.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3):351-360.
23. Kang. MO.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Korean Philosophy. 2015;47:207-238.
24. Park SW, Kim GM. Effect of self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1;19(1):1-10.
25. Lim SA.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self-awareness and other-awareness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6;16(5):733-740.
26. Ji EJ, Bang MG,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4):571-579.
27. Gurin, E. I, Dey, S. Hurtado, G, Gurin.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nd Educational Review. 2002;72(3):330-365.
28. Seo YS, Kwon YC.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tence. 2014;12(6):415-423.
29. Lee HK. Kim JH. Effects of role acceptance on empath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1;3(1):15-29.